치열한 추격전

이는 '민주당 공천=당선'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여서 본선보다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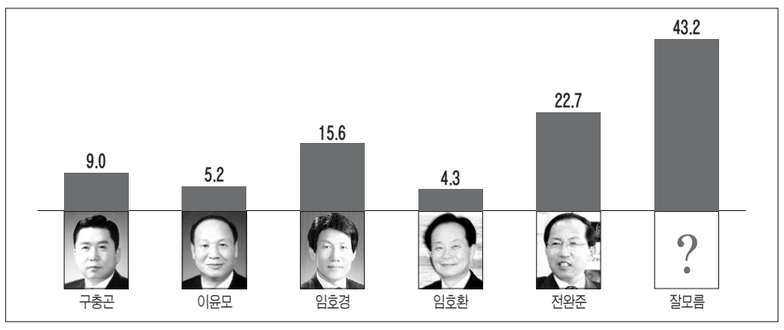
지역별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향을 물은 결과, 한나라당은 보성(9.5%)과 목포(9.4%)에서 지지율이 두자릿수에 육박했다.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계열 정당은 농민운동 강세 지역인 장흥(13.6%)에서 두자릿수를 넘겨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전남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기준을 '정당 공천'이나 '정치적 경험'보다는 '후보자의 자질'을 더 중시했다.

반면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여수(18.9%)·화순(16.7%)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'청렴과 도덕성'을 후보자의 주요 덕목으로 꼽았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단위 : %



전완준 군수 22.7%·임호경 전군수 15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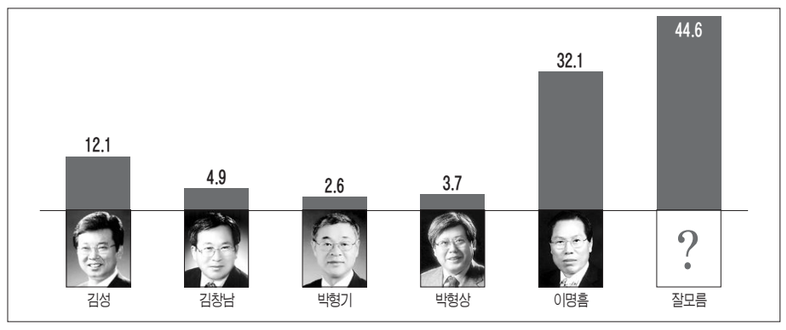
화순군수

전완준 현 화순군수와 임호경 전 화순군수의 전·현직 대결이 볼거리다. 양 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선거모드에 들어간 상태로, 벌써부터 살바싸움이 치열하다.

이번 조사에서 전 군수는 22.7%의 지지율을 기록했고, 임 전 군수는 15.6%로 양강구도를 형성했다.

구충곤 전남도의원 9.0%, 이윤모 전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 5.2%,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 4.3%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(43.2%)이 '잘 모르겠다'고 답변해 부동층 흡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전직 군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자 화순 유권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후보자의 자질(35.9%)과 청렴·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이명흠 재선가도에 박형상 젊은피 도전

장흥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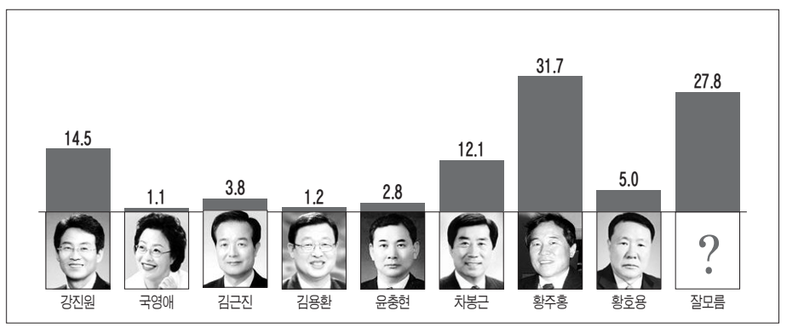
이명흠 현 장흥군수가 32.1%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선 가도를 내달리고 있다.

가장 유력한 도전자로 거론되는 김성 전 전남도의원(12.1%)과 큰 격차가 나고 있다. 김 전 의원은 아직까지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상태다.

지난해 4·29 재보선에서 민노당 정우태 후보에게 일격을 당한 후유증이 만만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최근 출마 결심을 한 박형상 변호사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3.7%로 낮지만 '젊은 후보론'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. 김창남 전남도의원은 최근 군수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민노당에서는 박형기 장흥위원장(2.6%)이 뛰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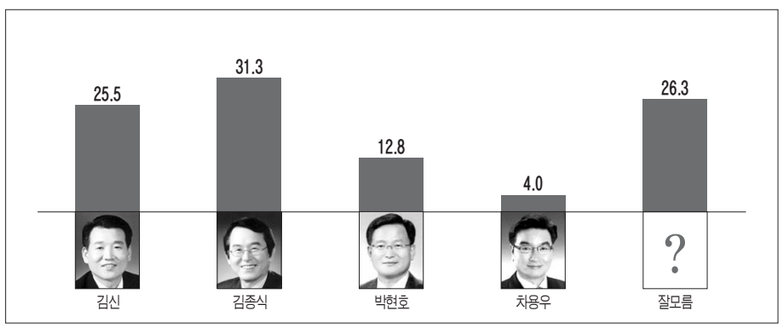
황주홍 무소속 선언…강진원·차봉근 추격

강진군수

강진군수 선거의 최대 이슈는 3선에 도전하는 황주홍 현 군수의 무소속 출마다.

황 군수는 이번 조사에서 31.7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. 하지만 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을 주도한 황 군수가 최근 국회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,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공천경쟁에 불이 붙었다. 대항마로는 강진원 전 전남도 국장(14.5%)과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(12.1%)이 거론되고 있다.

또 황호용 전남도의원(5.0%), 김근진 강진농협 조합장(3.8%), 윤충현 농촌공사 강진완도 지사장(2.8%),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(1.2%), 국영애 전남도의원(1.1%)도 자천타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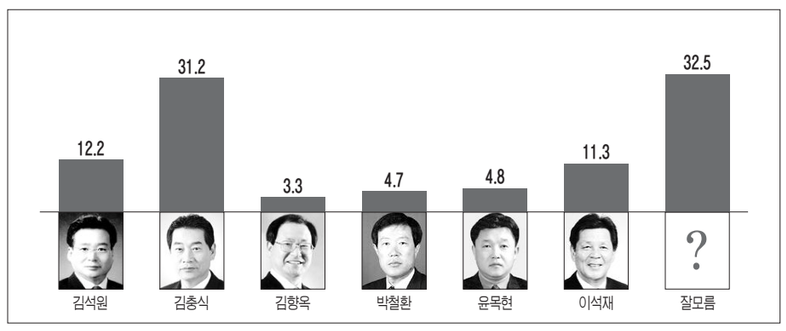
김종식 고른 지지, 김 신 다크호스로

완도군수

김종식 현 완도군수의 3선 가도를 누가 막을 것인가가 관심이다.

군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폭넓은 지지층,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군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31.3%를 기록, 1위를 차지했다. 김신 완도군의원은 25.5%의 지지율을 보이며 김 군수와 양강구도를 형성, 다크호스로 떠올랐다.

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에게 패배한 박현호 전 완도부군수는 12.8%, 군수직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도의원에서 군의원으로 '유턴'한 차용우 완도군의회 의장은 4.0% 지지로 조사됐다. 특히 완도는 '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'는 답변이 73.6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공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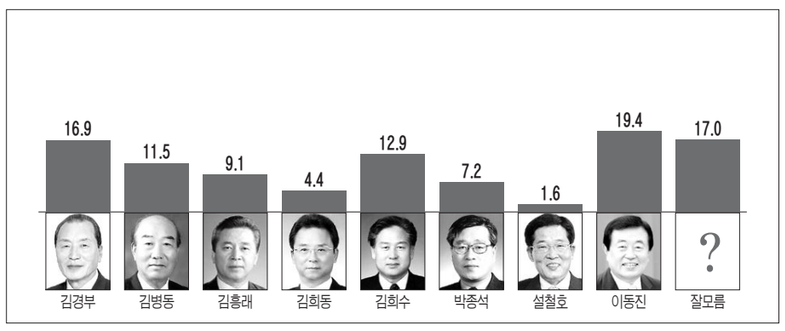
김충식 독주속 김석원·이석재 대항마

해남군수

박희현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김충식 현 해남군수가 재선거를 통해 입성했다. 이번 조사에서 김 군수는 지지율 31.2%로 독주현상을 보였다.

여기에 김석원 전남도의원(12.2%)과 이석재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(11.3%)이 김 군수의 뒤를 쫓고 있다. 윤목현 전 무등일보 부사장(4.8%)과 박철환 해남군의회 부의장(4.7%), 김향옥 자연환경 대표이사(3.3%) 순이었다. 특히 김 군수는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39.9%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 당내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.

해남은 박 전 군수의 비리사건 탓인지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(49.0%)과 청렴·도덕성(13.9%)을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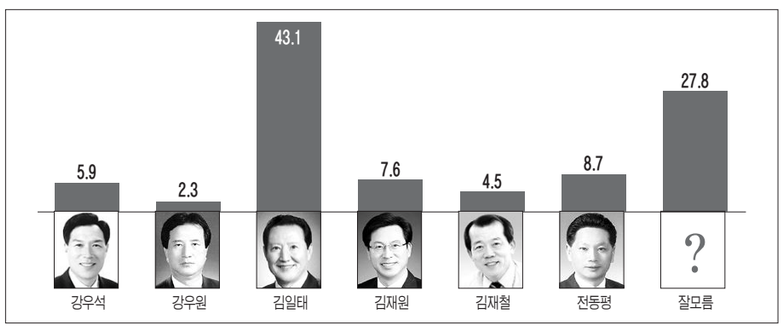


이동진 선두에 김경부·김희수 추격

진도군수

비리에 연루된 박연수 전 군수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돼 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다. 전직 군수를 비롯한 관료 출신들과 지방의원, CEO 출신 등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합을 보이고 있다.

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19.4%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, 김경부 전 진도군수가 16.9%로 오차범위(±5.23%) 내에서 추격하고 있다. 지난해 10월 명예퇴임한 김희수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(12.9%)과 김병동 전 전남도의원(11.5%), 최근 군수 출마 선언을 한 김흥래 전 행정자치부 차관(9.1%), 박종석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(7.2%)등도 자신감을 내보이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. 한나라당에서는 설철호 진도 당협위원장(1.6%)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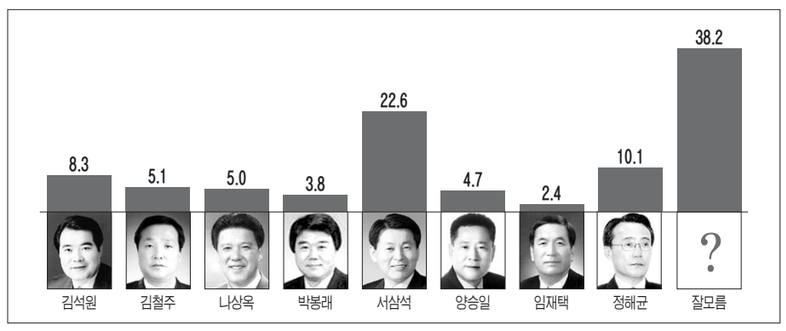
김일태 현군수 지지율 43%로 압도적

영암군수

올 10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(J프로젝트) 개발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.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륜이 요구되고 있어 영암 유권자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'정당공천'(19.8%)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

김일태 현 영암군수가 43.1%의 지지율을 기록,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렸다. 2위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(8.7%)과 3위 김재원 전 전남도 민원실장(7.6%)과 5배 차이가 난다. 이어 강우석 전남도의원 5.9%, 김재철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4.5%, 강우원 전남도의원 2.3% 순이었다.

김 군수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(40.1%~49.7%)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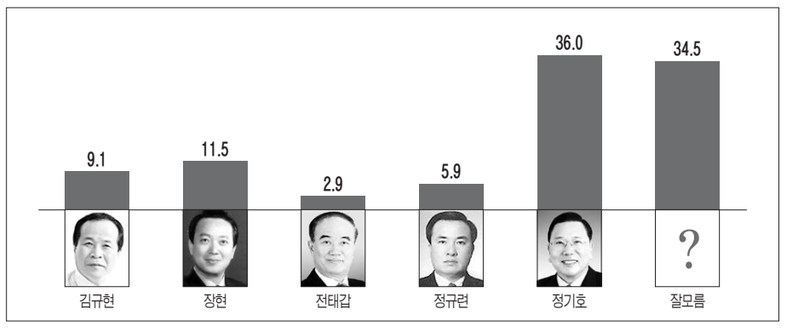
서삼석 롱런, 정해균·김석원 견제주자로

무안군수

서삼석 현 군수의 3선 성공여부가 관전 포인트다. 최근 무안 한·중산단 조성 사업을 놓고 이윤석 국회의원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서 군수의 롱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서 군수는 전남도의원과 두 차례의 군수를 거치면서 다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에서 22.6%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를 유지했다.

대항마로는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(10.1%)과 김석원 전남도의원(8.3%)이 떠오르고 있다. 김철주 전남도의원(5.1%), 나상옥 목포·무안·신안축협 조합장(5.0%), 양승일 전남도의원(4.7%), 박봉래 전 무안군의회 의장(3.8%), 임재택 목포 문태고 교장(2.4%)도 민주당 공천을 향해 분주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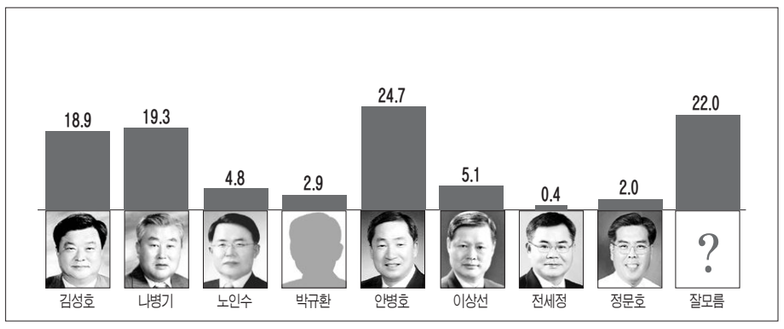
정기호 36% 1위… 무소속 합종연횡 주목

영광군수

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정기호 현 영광군수가 무난하게 군정 수행을 하고 있고, 탄탄한 조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36.0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 특히 민주당 후보 지지층들은 정 군수에게 지지(48.8%)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민주당 소속인 정 군수의 독주현상이 뚜렷하다보니 영광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보다는 정 군수에 맞설 무소속 후보군들의 합종연횡에 주목하고 있다.

무소속 후보군 중에는 장현 호남대 교수(11.5%)가 앞서 있고, 정 군수와 한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는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 의장(9.1%)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. 정규련 변호사(5.9%)와 전태갑 전남대 명예교수(2.9%)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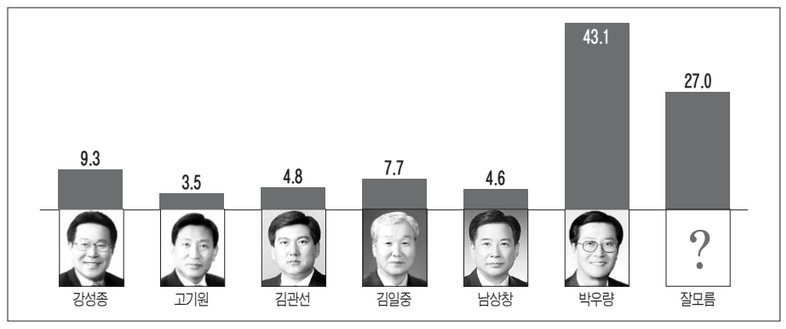
무주공산 안병호·나병기·김성호 3파전

함평군수

'3선 연임 제한' 규정에 걸린 이석형 함평군수가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군수직을 전격 사퇴해 무주공산이 된 군수 자리를 놓고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.

안병호 전 함평축협 조합장과 나병기 전 남도의원, 김성호 전남도의원이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.

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당시 무소속 이석형 군수의 아성을 넘지 못한 안 전 조합장은 24.7%의 지지율로 선두에 올랐다. 함평군의회 의장을 거쳐 전남도의회에 진출한 나 의원은 19.3%, 재선 의원인 김성호 전남도의원은 18.9%를 기록했다. 이상선 전 육군군수사령부 정비관리처장(5.1%), 노인수 변호사(4.8%)도 민심을 살피며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.



무소속 박우량 43%… 민주당 공천경쟁

신안군수

무소속을 고수하고 있는 박우량 현 신안군수와 민주당 후보간 양자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'현직 프리미엄'을 등에 업은 박 군수가 43.1%를 기록해 김일태 영암군수와 함께 광주·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 반면 민주당에서는 강성종 전 남도의원(9.3%), 신안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일중 전 전남도의원 (7.7%),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관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(4.8%)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. 한나라당에서는 제3보병사단장을 지낸 고기원 무안·신안 위원장(3.5%)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